

大學教育의 目標와 現實



漢陽大 總長 李 海 成

우리는 누구나 社會가 發展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두려움 없고 걱정 없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고,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便安하고도 豊饒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떻든 社會的 價値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社會의 性格이나 類型이 變動을 거듭해야 발전하는 社會로 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敎育도 그 성격이나 유형이 社會的 價値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계속 變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發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社會構造 속에는 여러 領域과 階層이 각기 다른 價値 基準系를 가지고 있어서 價値를 增大시키려 하거나 發展을 志向하려 하는 욕구나 방향이 같을 수 없는 것이 常識인데도, 유독 敎育에 관한 한 領域이나 階層을 떠나서 그 欲求나 方向이 合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敎育은 국민 기본권에 입각한 國民의 人權意識이나 機會均等 의식의 요망에 따라서 행해진 敎育의 平等化 또는 平準化 작업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의 主導가 下向式이어서 정책이나 행정의 硬直되고 一貫性이 缺如되어 많은 迂餘曲折을 겪었다.

어떻든 이 단계에서 앞으로의 우리 敎育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 民主化의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고, 被敎育者의 個性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全人的 敎育을 목표로 노력하는 것이 또다른 敎育發展을 내다볼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敎育은 결국 健全한 國民, 健全한 市民이 될 人材를 만드는 일이므로 情緒的으로 健康하며 創意力과 批判力을 가지고 時代的 動向에 대응할 수 있는 思考力과 行動力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時代的 變遷에의 對應이란 다름 아닌 多樣化되어 가는 社會, 國際化되어 가는 사

회, 고도로 情報化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여도 主體的 人間으로서 對決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밑바탕이 있어야 知識이나 技術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敎育의 目標나 役割이 뜻한 바의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길로 흐르는 現象을 나타내는 데 있다.

우리의 敎育熱이 지나치게 過熱되어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을 달리하면 결코 닦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敎育熱로 인하여 우리 敎育은 國家社會가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그 발전에 寄與하였으며, 國民의 意識水準을 선진국 못지않게 높일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 그러나 敎育을 받으려는 욕구나 생각의 밑바닥에 適者生存의 경쟁 원리가 전제되어 富貴나 權威 획득의 지름길을 찾겠다는 의식이 팽만한 가운데 상급 학교나 명문 대학의 卒業狀 또는 국가 고시의 合格證이 생애의 보장 증서로 간주됨으로써 學歷主義가 부추겨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敎育의 評價가 시험 점수나 성적 순 위주의 偏差值 競争을 부추기고, 合格 여부만으로 그 威勢를 판가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學校敎育은 知能이나 知識 偏重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敎育危機說의 震源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社會變動 과정에서 經濟成長 우선이라는 劃一的이고 支配的인 관념이 사회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敎育조차도 生産活動이며 생산 인력의 需給 계획에 따라 敎育政策이나 敎育計劃이 立案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敎育産業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것은 敎育이 經濟成長을 촉진할 人間資本을 供給하는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인 것 같다. 또한 産業의 高度化 추세와 科學技術의 急進의 尖端化, 國際貿易 경쟁의 격화 및 産業의 戰略化 등은 특히 高等敎育 과정에서 높은 敎育水準을 갖춘 人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經濟成長에 직결된다는 인식인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敎育이 설혹 經濟成長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敎育의 定量的 측면의 성과를 資源視하는 것이며, 敎育의 本質的 성과인 定性的 측면을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社會發展이 經濟成長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면, 敎育에 대한 이런 식의 觀念이나 解釋은 오히려 敎育 발전의 沮害 要因이 된다.

敎育은 분명히 다음 世代를 위한 것이고 그 政策이나 制度 그리고 投資에 이르기까지 長期的 眼目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衆論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敎育이 본 軌道에 오를 수 있고, 그 發展을 加速化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